



한국불교 이정표 제시한 월주 대종사 사대로 돌아가다

<지·수·화·풍>

7월26일, 금산사에서 영결·다비식 봉행
종진스님들·정치인·저명인사 등 참여
“대종사 삶 종단사에 오래 기억될 것”
7월28일 초재…막재는 9월8일 금산사

현대불교사의 질곡을 함께 하며 조계종 17·28대 총무원장을 역임하는 등 커다란 발자국을 남긴 태공당 월주 대종사가 사부대중의 눈물을 뒤로 한 채 적멸에 들었다.

조계종 17·28대 총무원장 태공당 월주 대종사 종단장 장의위원회(집행위원장 금국 스님)는 7월 26일 김제 금산사에서 ‘태공당 월주 대종사 영결식 및 다비식’을 봉행했다. 연일 40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에도 월주 스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기 위한 불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결식장 입장이 제한되자 추모객들은 스님의 법구가 다비장으로 이운되는 길가에서 마지막 삼배를 올리며 스님과의 이별에 눈물을 뿌렸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독과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가운데 봉행된 영결식은 명종 5다로 시작됐다. 개식 및 삼귀의, 인목·덕산 스님의 영결 법요, 도영·도법 스님의 한향 및 헌다, 지명 스님의 행장 소개에 이어 추도임경, 생전 육성 법문, 영결사, 법어, 추도사, 조사, 추모의 글, 헌화, 인사발, 사홍서원으로 마무리됐다.

중정 진제 대종사는 법어에서 “월주 스님은 종단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총무원장 소임을 맡아 종단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또 국내외 해외를 막론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자비행을 실천

하신 종장이었다”고 추모했다.

영결사 도중 젖어드는 눈시울을 숨기지 못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홍대한 스승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다”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의 삶은 보살도와 보현행원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말씀하신 대종사의 삶은 실제로도 그러했다”고 밝혔다. 이어 “매사 공심을 앞세우며 종단 발전을 위해 헌신하셨던 대종사의 삶은 우리 종단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회의장 정문 스님 역시 조사에서 “모든 날을 마지막 날처럼 살았다고 하는 스님의 일생은 보살의 삶 그 자체였다”며 “얼른 돌아와 보살의 행원을 이어가 달라”고 염원했다.

이어 김화중 대주교는 “월주 스님은 이웃 종교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종교간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이는 조화와 화합의 화쟁사상을 실천하고자 하는 월주 스님의 고귀한 헌신 덕분”이라고 밝힌 뒤 스님의 소중한 가치를 더욱 발전시킬 것을 약속했다.

이밖에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경우,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 일오, 관음종 총무원장 흥파 스님과 주운식 중앙신도회장, 이원욱 국회 정각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박준배 김제시장이 조사를 전했으며, 나눔의집 강일출 할머니 등도 영상을 통해 월주 스님의 입적을 깊이 애도했다.

영결식 이후 월주 스님의 법구는 금산사 초입에 마련된 연화대로 이운됐다. 처영기념관을 나와 보례루 앞마당을 크게 한 바퀴 돈 운구행렬은 대적광전과 미륵전 부처님께 세간에서의 마지막 인사를 올리고 금강문을 천천히 건넜다. 문도와 장의위원, 스님, 포교사, 신도들이 만장과 함께 뒤를 따랐다.

스님의 법구와 만장 행렬이 연화대에 도착하



7월26일 금산사에서 열린 월주 대종사 다비식. 한국불교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대종사의 법구가 솟아오르는 불꽃과 연기를 따라 홀연히 지수화풍으로 돌아갔다.

고 이어 다비식이 임수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비식장 역시 참석 인원이 제한됐다. 사부대중은 멀리서나마 “나무 아미타불”을 간절히 불렀고, 그 소리는 메아리가 돼 모악산을 울렸다. 염불소리가 연화대에 가득 차는 순간 “불, 법, 승” 외침과 함께 월주 스님의 법구는 허공을 휘돌며 솟아오르는 불꽃과 연기

를 따라 홀연히 지수화풍으로 돌아갔다.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이 영결식과 다비식에 참석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를 전한 후에도 대중들은 오랫동안 다비단 주변을 돌며 스님과의 이별을 애석해했다.

월주 스님은 7월22일 오전 9시45분 금산사 만월당에서 “하늘과 땅이 본래 크게 비어있으니/

일체가 또한 부처이구나./ 오직 내가 살아왔던 모든 생애가/ 바로 임종계가 아닌가./ 할!天地本太空, 一切亦如來, 唯我全生涯, 卽是臨終偈, 囑!”이라는 임종계를 남기고 세남 87세, 법랍68세에 홀연히 원적에 들었다. [☞ 관련기사 2·3·4면](#)
김제 금산사=임은호기자 eunholic@beopbo.com
신용훈 기자 boor13@beopbo.com

삼보사찰 천리순례서 국보·보물급 문화재 친견한다

순례길에 국보 16건·보물 98건 즐비

문화재로 굴절 많은 한국불교사 이해

“불교문화 자부심 느끼는 시간 될 것”

한국불교 중흥과 국난극복을 염원하는 상월선원 만행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에 교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순례길에서는 각 사찰에 조성돼 있는 수많은 성보(聖寶)들을 직접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선조들의 신심과 원력이 고스란히 스며든 불교문화재들을 살펴봄으로써 한국불교의 발자취를 되짚고, 한국불교 중흥의 원력을 모으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법보신문이 9월30일~10월18일 19일간 진행되

는 ‘상월선원 만행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 일정을 분석한 결과 이번 순례길에서는 국보 16건, 보물 98건의 성보문화재를 만날 수 있다.

국보로는 순전 송광사 ‘국사전을 비롯해 구례 화엄사 ‘각황전’, 남원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 밀양 표충사 ‘청동 은입사 향완’, 양산 통도사 ‘대웅전 및 금강계단’ 등이 대표적이다. 보물로 ‘송광사 삼육조사전영’ ‘화엄사 원통전 앞 사자탑’ ‘천은사 극락보전’ ‘실상사 동·서 삼층석탑’ ‘해인사 석조여래입상’ ‘표충사 삼층석탑’ ‘통도사 봉발탑’ 등 각 사찰을 대표하는 성보들이 즐비하다.

성보문화재 조성시기별로도 찬란한 불교문화

를 꽃피웠던 삼국~고려시대, 모진 탄압에서도 불교가 명맥을 유지해 왔던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채롭다. 때문에 순례길에서 만나는 성보문화재는 그 자체로 굴곡 많았던 한국불교사를 직접 살피고 느껴보는 교육의 장이기도 하다.

상월선원 만행결사 총도감 호산 스님은 “성보문화재 속에는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알리려는 전범의 의지, 부처님 위신력으로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했던 깊은 자비심 등 옛 선조들의 신심과 원력이 담겨 있다”며 “이번 순례를 통해 한국 불교문화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6면

정주연 기자 jeongjy@beopbo.com

여름휴가로 다음주 신문은 쉽니다. beopbo.com 뉴스는 계속

“수도권 사찰 최대 19명까지 대면 법회 가능”

조계종, 방역수칙 전국 사찰에 시달

7월27일부터 8월8일까지 적용 예정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수칙이 조정됨에 따라 제한적으로 대면 법회가 가능해졌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사찰은 수용인원의 10% 범위 내 최대 19명까지 대면 법회가 가능하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7월30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이 최근 행정법원의 비대면 예배 집행정지 일부 인용결정 취지를 고려해 발표한 4단계 종교시설 방역수칙 관련 해석 안내를 전국 사찰에 시달했다. 이번 안내는 7월27일부터 8월8일까지 적용된다.

안내에 따르면 현행 4단계 정규 종교활동의 비대면 운영 원칙을 유지하되, 일부 대면 활동도 가

능하다. 수도권 사찰의 경우 초하루, 일요일 등 정기법회에는 일반 신도를 포함해 총 19명이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동일 시설 내 법당 등 종교활동 공간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동시간대 공간별로 수용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최대 19명까지 허용된다.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이 10명 이하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수용인원 기준과 상관없이 10명까지 대면 활동이 가능하다. 다만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처벌)을 받은 종교시설은 비대면을 유지해야 한다.

비수도권 사찰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전각별 수용인원의 20%만 참석하도록 제한됐다. 조계종은 “변경된 안내가 나오긴 했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침이 상이한 곳이 많다”며 “해당 사찰은 관할지역 지침을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내영 기자 ny27@beopbo.com

대한불교조계종 제17대 · 28대 총무원장, 금산사 조실

태공당 월주 대종사 종단장 봉행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7대 · 28대 총무원장, 금산사 조실

태공당 월주 대종사께서 지난 7월 22일 오전 9시 45분 금산사

만월당에서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반에 드셨습니다.

이에 7월 26일 영결식과 다비식을 대한불교조계종 종단장으로 엄숙하게 봉행하였습니다.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추모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종정예하, 대덕 스님들 그리고 문제인 대통령님과

각계 기관장님, 불자 및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큰스님께서는 평소 자비심으로 요익중생(饒益衆生)하라고

저희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또 바로 실천에 옮기라고도

하셨습니다. 큰스님 뜻에 어긋나지 않게, 가르침을 따르며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추모의 마음으로 함께 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불기 2565년 7월 28일

문도일동

태공당 월주 대종사 추모 일정

- | | | | |
|---------|--------------|-----|---------|
| ▪ 초 재 | 2021년 7월 28일 | 10시 | 금산사(김제) |
| ▪ 2 재 | 2021년 8월 4일 | 10시 | 송광사(완주) |
| ▪ 3 재 | 2021년 8월 11일 | 10시 | 실상사(남원) |
| ▪ 4 재 | 2021년 8월 18일 | 10시 | 은적사(군산) |
| ▪ 5 재 | 2021년 8월 25일 | 10시 | 조계사(서울) |
| ▪ 6 재 | 2021년 9월 1일 | 10시 | 영화사(서울) |
| ▪ 4 9 재 | 2021년 9월 8일 | 10시 | 금산사(김제) |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모악15길 1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 모악산 금산사
전화 063) 548-4440~2